

이순신 수군 상승불패 원인을 알아본다

이 내 원(이순신 승모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역사상 최악의 국난인 임진왜란 7년 기간동안 오직 이순신 수군만이 23전 23승, 무패 전승을 이룩하며 내용면에서도 한산도 해전에서 세계 해전사에 영원히 깨지 못할 불가사의의 대완승을 이룩하였다. 이순신은 삼도연합함대 56척으로 73척의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포위 공격 하므로써 그 중 59척을 격파하고 왜군 9천여명을 몰살시켰다. 이 때 조선군의 피해는 단지 전사 19명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원군의 칠천량 패전 후 겨우 폐선 13척을 끌어모은 이순신은 명량해협에서 10배도 넘는 일본 선단 133척을 맞아 그 중 31척을 격파하고 왜군 수천명을 무찔러 왜군의 서해복상 노력에 썰기를 박았다. 이 때의 조선수군 피해는 전사 2명 뿐이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순신 함대의 압도적 전승 요인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수군 조직의 태생적 차이

조선의 수군은 통합집단 운영을 특성으로 하는 이른바 군대로 육성되어 진법운용등 총괄 지휘체제를 갖추고 있는 전투집단인데 반하여 일본의 수군은 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투 부대라기 보다는 육군의 병참 및 수송을 위한 부속 수송대로 참전한 점이 다르다.

일본 내에서도 이들은 해전을 하던 집단이 아니라 어느 다이묘(大名)에 소속되어 물자 운반을 맡는 것이 고작이었고 해전 경험이라고 해야 왜구로 이웃나라 연안을 기습 약탈해본 정도였던 것이다. 실제로 임란때의 왜 수군장중에는 구루시마 같은 해적출신이 끼어있었다.

또 임란발발 4년전에 있었던 왜구의 우리 남해 손죽도 침탈경험으로 조선수군이 보잘 것 없다는 인식에서 해전대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기체계의 우열

조선의 수군은 크고 견고한 U자형 평저 판옥선에 강력한 화포를 14문 정도씩 장착하고 방향전환과 기동력이 뛰어난 막강 전함을 갖춘위에 거북선 같은 돌격 전투함까지 구비하고 있었던데 반해 일본배들은 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더라도 배밀이 V자형 첨저선으로 작고 위약하여 화포를 장착하지 못해 개인 무기인 조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조총의 유효 사거리가 50m정도인데 반하여 이순신 전함의 화포는 그 열배인 500m내지 1000m까지 나갔으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또 일본의 배는 약하여 우리배와 부딪히면 먼저 부서지기 때문에 이순신은 부딪혀 부수기인 당파전(撞破戰)을 즐겨 썼다.

조선배는 노가 선체 안으로 내려 꽂혀서 충돌시 노가 보호되지만 일본배들은 노가 옆으로 조정처럼 뻗혀있어 부딪히면 노가 먼저 부러져 나가기 때문에 기동력을 잃게 마련 이었다.

지리적 조건의 이점

남해바다는 다도해라고 불릴만큼 천여개의 섬이 복잡하게 널려있어 낮이 선 일본 수군에게는 어려운 작전지역일 수 밖에 없었으나 조선수군에게는 안마당과 같아 숨었다 나아가고 치고는 물러가 숨는등 유리한 작전환경을 제공했다. 더욱이 이순신 막하에는 남해의 물길을 손금보듯 통달한 어영담이라는 장수가 있어 살아있는 지도 역할을 했으며 이런 이유로 이순신은 적의 눈을 피해 야간항해를 즐겨했다. 또 견내량 명량등 물의 깊이와 흐름, 해협의 넓이와 수중 쇠사슬 등 지리적 특성을 천군만마처럼 이용하기도 했다.

이순신의 걸출한 리더십과 전략사상

아무리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원군의 단판 참패에서 볼 수 있듯이 이순신이라는 불세출의 리더가 없이는 전승과 압도적 완승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한 상황판단, 신출귀몰한 창의적 작전,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 사수의지 모든 군민을 하나의 뜻으로 단결시키는 절대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지장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순신 전략의 요체를 들어보면

1. 생존전술 - 이순신은 항상 살아남는 전술을 으뜸으로 삼아 적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줄뿐 우리군사는 끔찍이 아껴서 절대 열세의 조선 수군이 7년전쟁을 끈질기게 살아남아 최후의 승리를 확보했던 것이다. 임진 7년 총 전과를 보면 이순신 수군의 피해는 선박손실 3척, 인명손실 1000여명인데 반해 일본은 선박손실 930여척, 병력손실 12만 6천여명이라는 압도적 차이가 이를 여실히 말해준다.

2. 싸울때와 싸움터는 내가 결정한다 - 그 좋은 예가 한산도 해전과 명량해전이다.

이 전략으로 이순신은 항상 전쟁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바꾸어 말하면 이순신은 싸워서 이길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싸움에만 나서고 아니면 준비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3. 창의적 전술 - 이순신은 전투환경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전법을 끊임없이 창안해 냈다. 거북선 돌격전법, 학익진 포위작전, 부산포 원정공격, 웅포상륙작전, 명량지리전, 노량화공작전 등의 변환이 그것이다.

4. 통합의 리더쉽 - 이순신 수군이 이길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이 그 막하장졸과 백성을 “국토사수”라는 단일 목표에 통합 단결 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며 그 두드러진 예가 명량해전의 국민 총력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수군 백전백승의 비결은 바로 선조들의 지혜인 화포 및 판옥선의 전력을 극

대화 하고 자신의 새로운 거북선과 전술을 더 하면서 필사즉생의 결연한 국토수호 의지로
막하군민의 하늘 같은 신뢰를 확보한 이순신의 위대한 리더쉽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